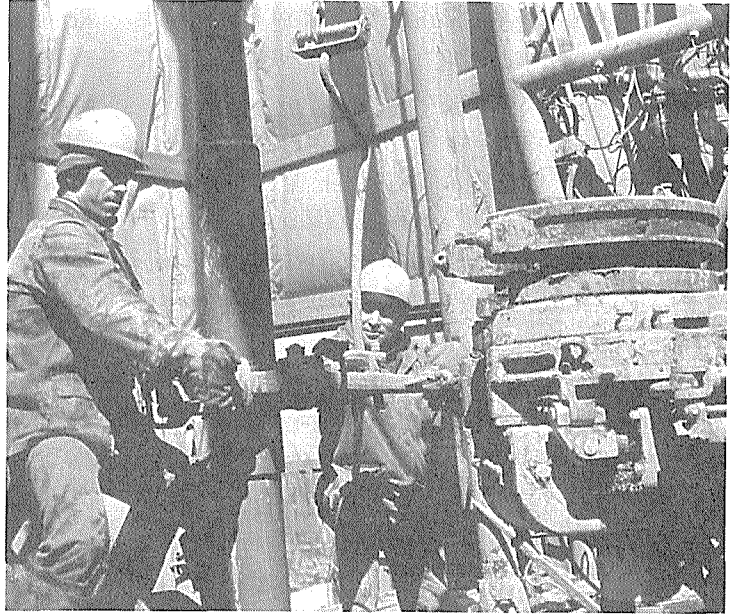


# 성숙되고 있는 극동러시아 개발 가능성



극동러시아와 동북아 국가간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의 교역 가능성이 역내 당사국들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가 개선된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의 에너지 수급 사정, 중국의 에너지 수입국화 등이 이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러시아 개발사업에 한국과 일본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이 지역이 동북아의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8월 일본 정부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Kovyktinskoye* 가스전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입장을 *Oil & Gas Journal*(1997.8.18)과 *World Gas Intelligence*의 근착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 극동지역의 매장량

한국을 포함한 동북 아시아에 향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주요 공급 가능지역으로 4개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사할린대륙붕, 사하공화국, 동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와 *Krasnoyarsk* 지역, 투르크메니스탄이 그곳이다.

이르쿠츠크 지역은 *Verkhnechonskoye*, *Kovyktinskoye* 등 2개의 대규모 석유가스전이 있다. 전자는 이르쿠츠크 동북 900Km에 위치한 *Katangsky* 지역으로 '78년에 발견되었다. 잠재 매장량 44-47억배럴 중 16억배럴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후자는 가스 콘덴세이트 전으로 '87년에 발견되었으며 이르쿠츠크 북동쪽으로 350Km 떨어진 *Zhigalovsky* 지역에 속한다. 8,700억<sup>3</sup>m의 천연가스와 4억배럴의 콘덴세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석유생산을 맡고 있는 *Sidanko* 측은 1조2천억<sup>3</sup>m의 천연가스와 6억배럴의 콘덴세이트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

지역의 탐사개발권은 Sidanko가 주주인 Rusiya Petroleum이 가지고 있다. Krasnoyarsk지역에는 Yurubchenskoye (Krasnoyarsk북서 350km) 유전이 있다. 동 유전에는 55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26억 배럴을 가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탐사개발권은 Voskchno-Sibirskaya Oil & Gas Co.(Vsohc)라는 소규모 생산회사가 가지고 있다. 사하공화국에는 30여개의 석유 및 가스전이 있다. Srednebilyuyskoye, Srednetyungskoye, Chaiyadinskoye 가스전과 Srednebotuobinskoye, Talakanskoye 등의 유가스전이 있다. 이들 지역에 2조2천억<sup>m<sup>3</sup></sup>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약 1조2천억<sup>m<sup>3</sup></sup> 채굴가능), 석유는 11억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할린지역은 사할린-1 프로젝트에 Lunskoye, Piltun-Astotskoye 유전이 포함되어 있어 1억 3천만톤의 석유 및 콘덴세이트와 4,600억<sup>m<sup>3</sup></sup>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사할린-2 프로젝트에는 2억 8천만톤의 석유와 2,800억<sup>m<sup>3</sup></sup>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Odoptu, Chaivo, daginskoye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 중-러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90년대 초반에 BP와 Statoil은 동시베리아 특히 이르쿠츠크지역의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동지역에서 생산될 석유와 가스의 소비시장이 없고, 지역의 가스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합작투자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중국의 가스시장은 규모가 매우 적었고 향후의 증가 가능성도 극히 유동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92년에 Kovyktinskoye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지역내의 석유화학연료와 발전소 연료 공급 및 Angarsk 정유소에 원료공급을 위하여 Rusiya Petroleum을 설립하였다. Sidanko와 자회사가 Rusiya Petroleum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다. 동사의 또다른 주주는 Irkutsk Oblast, Irkutskenergo, Angarsk

Refinery와 한국의 동아시아가스(주)이다.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고 중국의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자, 동시베리아 개발에 대하여 중국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92년 7월에 중국 CNPC 부사장(Zhang Younyi)은 동시베리아의 유전을 개발할 것을 러시아와 일본측에 제안하였다. 동 제안에는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한국을 경유하는 석유파이프라인을 일본까지 건설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93년 9월에 CNPC측은 이르쿠츠크의 Markovskoye, Yarktinskoye 석유가스 탐사를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러시아측은 이르쿠츠크의 Petroleum & Gas Geological Co.와 Geophysical Research Institute가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측은 2개의 탐사정을 시추했다. 당시 러시아는 이르쿠츠크 가스와 전력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지역의 석유와 가스 개발은 2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기오염 개선과 극동지역 발전 연료난을 경감시킬 수 있다. 즉 Kovyktinskoye 지역의 발전 연료가 석유와 갈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되면 연간 40만톤의 오염물질이 감축되며, 발전 연료로 사용되던 석탄 1,600만톤을 극동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력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Brask(4,500MW), Ust Ilinsk 수력발전소(3,840MW), Irkutsk CHPP No.10 화력발전소(1,050MW)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94년 11월에 중국-러시아는 장거리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동시베리아 석유가스 개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동 파이프라인은 연간 200~300억<sup>m<sup>3</sup></sup>의 천연가스를 중국 동부지역으로 수송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95년 3월 CNPC의 한 고위간부는 중국이 몽고를 경유하여 동시베리아 및 서부시베리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일본의 국제회의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서부시베리아 Vostochno-Urengoi 가스전으로부터 도입하려던 계획은 Gazprom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반대의 이유는 서부 시베리아의 자원은 유럽과 자국의 소비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Gazprom*의 이같은 유럽중심적인 가스 수출정책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96년말에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러시아 석유 가스협력 위원회가 설립되였다. 동 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2002년부터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북경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2003년부터는 천연가스를 2005년부터는 원유를 수출기로 되어 있다. '96년 7월에는 한국의 동아시아가스(주)가 *Rusiya Petroleum*의 지분 27.5%를 매입하고 동 시베리아의 석유가스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동시베리아의 가스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6년 10월에 *Anatoly Shatalov* 러시아 연료에너지부 장관은 사할린 대륙붕의 천연가스 및 석유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극동에서의 러시아 기업들의 활동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석유가스 수출시스템을 개정할 것을 시사했다. '96년 말부터 연료 에너지부는 극동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97년 2월에 외무부 차관(*Grigory Karasin*)과 *Gazprom*회장(*Rem Vyakhirev*)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동방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중-러 협력 프로젝트(삼협담에 대한 에너지 부품 공급, 동시베리아-북동중국 파이프라인 건설, 이르쿠츠크-북경 전력수출, 강소성 원전 건설 지원 등)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Gazprom*회장은 아시아 시장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출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금년 6월 *Gazprom*회장은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 가스 회의에서 동시베리아의 가스전을 적극 개발하여 극동러시아 지역의 소비는 물론 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할 것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그는 아시아지역은 2005~2007년사이에 LNG공급이 한계에 달할 것이며 새로운 공급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비하여 동부 이르쿠츠크 지역이 2000년 이후 개발될 것이며, 중국과 남북한, 일본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에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7년 2월 *Sidanko*회장(*Anatoli Sivak*)은 연방 정부의 에너지 프로그램(석유생산 및 석유 복합단지 건설)의 일환으로 *Kovykinskoye*가스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사진에는 동시베리아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국제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수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Kovyktinskoye* 가스전 개발에 대하여 *Sidanko*측은 에너지부, 지질광산부, 몽고, *CNPC*와 파이프라인 수출과 4개의 루트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검토결과에 의하면, 가스전에서 중국 북동 해안지역까지 짧은 루트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직경 1,440mm인 동 파이프라인의 총길이는 3,364km(러시아내 1,027km, 몽고내 1,017km, 중국내 1,320km)이며, 연간 320억<sup>m</sup>의 가스를 수송하게 된다. 동 파이프라인 건설비용은 15개의 가압소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70~1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입장

동시베리아 천연가스와 석유 개발에 있어서 최대 시장은 중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파이프라인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것을 요청받고 있다. '97년 5월 일본통상성 장관(*Shinju Sato*)은 IEA회의에서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것이 일본-러시아간의 국제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첫 언급이었다. 동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은 사할린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일본정부가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대러시아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북방 4개 도서 반환문제에 관해서는 당분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동시베리아산 천연가스 수입은 일본으로서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사할린 개발로 인하여 적어도 2020년까지는 천연가스 수입의 어려

옴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2020년 이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더우기 천연가스 개발시 함께 생산되는 석유는 품질이 우수하고, 또한 수송거리도 짧아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6년 6월 한국의 동아시아가스(주)와 Rusiya Petroleum의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인 바 있는 JNOC, Marubeni, Sumitomo는 '97년 들어 Nippon Steel, Tokyo Gas, Mitsui, Mitsubishi를 포함시켜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탐사개발 및 관련 수출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동 사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방기업들이 참여도 바라고 있다. Sumitomo는 이미 BP와 참여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국교 정상화 이후 극동러시아 자원 개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95년말에 러시아와 함께 사하 공화국 가스전 개발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PFS)를 한 바 있으나,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경제성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타당성 조사사업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96년 7월에 한보그룹의 동아시아가스(주)는 Rusiya Petroleum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모그룹이 파산한 상황에서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기대할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동아시아가스(주)의 진출에 관계없이,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즉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가스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등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개발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 개발조건들의 성숙

동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지역은 수송거리, 시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다른 어느 지역보다 다자협력을 통하여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97년 4월 Rusiya Petroleum의 이사회는

중국 동부연안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중국과 러시아측의 개발의지가 보다 객관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그러나 동 계획의 실행에 따르는 자금조달이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잠재 투자자들은 Kovyktinskoye 가스전이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할 만큼 가스 매장량이 충분한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동 지역에 대한 탐사평가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프로젝트가 되기 위하여는 20~30년간 연 200억<sup>m</sup> 이상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에 일본정부는 이르쿠츠크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일본, 한국, 중국 등의 관심있는 기업들은 향후 3년간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측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동 지역에 8,700억<sup>m</sup>의 가스와 5,600만톤의 콘덴세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사하공화국의 자원과 연계하여 생산하거나, Gazprom의 서시베리아산 가스의 공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수출물량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프로젝트는 주변국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의 잠재적인 대량 구매자들은 일단 중국-러시아간 파이프라인의 조기 건설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개발 참여를 통하여 에너지안보 확보와 에너지를 활용한 남북 경제협력 및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2020년까지의 천연가스 공급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양질의 석유도입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일본은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따른 투자수익에도 관심이 높을 수 있다. 향후 동시베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은 역내 국가간의 상이한 이해관계 조율, 충분한 수출물량 확보, 투자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들의 도입 정도 등에 따라 투자 및 개발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하여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일본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 국내 석유제품 가격동향

### 정유사 판매가격

(단위 : 원/ℓ)

'97.11 ~12	무연휘발유					등 유					경 유(0.1%)					저유황B-C유(1.0%)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세전가격	221.21	221.21	296.45	296.45	296.45	248.70	248.70	324.16	324.16	324.16	242.25	242.25	317.71	317.71	317.71	187.15	187.15	234.48	234.48	234.48
세후가격	767.04	767.04	849.80	849.80	849.80	327.20	327.20	410.20	410.20	410.20	327.20	327.20	410.20	410.20	410.20	205.86	205.86	257.92	257.92	257.92

<주> 소수점 3자리 이하 사사오입/매주 수요일에 조사. 제 3, 4주는 11월, 제 1, 2, 3주는 12월임.

### 대리점 판매가격

(단위 : 원/ℓ)

지 역	무연휘발유					등 유					경 유(0.1%)					B-C유(1.0%)				
	'97.11 ~12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서울특별시	779.66	779.66	859.36	859.36	859.36	332.53	332.53	416.31	416.31	416.31	333.03	333.03	417.68	417.68	417.68	212.96	212.96	265.09	265.09	265.09
부산광역시	781.08	779.75	862.08	861.50	861.75	334.00	334.00	416.42	417.08	416.17	335.08	334.42	417.92	415.42	415.42	212.69	212.69	264.82	262.91	263.16
대구광역시	783.17	782.83	863.17	864.50	863.33	335.75	335.75	420.00	418.38	418.42	336.58	336.92	419.25	419.38	417.92	212.45	212.45	264.48	264.71	264.71
인천광역시	779.33	779.33	860.50	860.50	860.50	332.83	332.83	415.83	415.83	415.83	333.83	333.83	416.67	416.67	416.67	212.42	212.42	266.10	266.10	266.10
광주광역시	783.67	783.67	864.67	864.67	864.67	335.48	335.48	418.48	418.48	418.48	335.26	335.26	418.26	418.26	418.26	215.17	215.17	268.31	268.31	267.25
대전광역시	784.58	784.48	865.58	865.58	865.58	335.00	335.00	418.00	418.00	418.00	335.00	335.00	418.00	418.00	418.00	212.97	212.97	265.05	265.05	265.05
울 산	783.58	783.58	865.63	864.75	864.75	334.50	334.50	418.25	416.83	416.83	336.83	336.83	418.25	419.50	419.50	212.88	212.88	264.88	264.88	264.88
경 기	782.75	782.75	863.92	863.92	863.92	334.67	334.67	417.67	417.67	417.67	334.58	334.58	417.58	417.58	417.58	213.31	213.31	265.32	265.32	265.32
강 원	778.25	779.00	860.83	860.83	860.83	333.50	333.83	416.83	416.83	416.83	336.00	335.50	418.50	418.50	418.50	213.84	214.22	265.91	266.24	266.24
충 북	783.25	783.54	864.52	864.52	864.42	335.75	335.75	418.75	418.67	418.67	336.00	335.92	418.75	418.67	418.75	211.77	212.49	264.51	264.32	263.75
충 남	780.08	780.08	861.92	861.92	861.92	333.33	333.33	416.83	416.83	416.83	333.75	333.75	415.42	415.42	415.42	221.02	221.02	265.36	265.36	265.36
전 북	781.25	784.75	861.92	861.92	861.92	331.67	335.25	414.83	414.83	414.83	337.17	335.00	416.00	416.00	416.00	212.18	211.93	265.48	265.48	265.48
전 남	784.08	784.08	864.92	864.92	864.92	336.27	336.27	419.50	419.50	419.50	336.35	336.35	419.58	419.58	419.58	213.97	213.97	265.99	265.99	265.99
경 북	782.17	782.17	863.75	863.75	863.75	335.92	335.92	418.38	418.38	418.38	336.75	336.75	417.88	417.88	417.88	211.17	211.17	263.88	265.02	265.02
경 남	779.67	779.67	861.00	861.00	861.00	333.17	333.17	416.42	416.42	416.42	333.33	333.33	416.25	416.25	416.25	213.41	213.41	265.49	265.49	265.49
제 주	800.50	800.50	882.50	882.50	882.50	344.88	344.88	426.75	426.75	426.75	343.88	343.88	425.75	425.75	425.75	-	-	-	-	-
전국평균	782.60	782.64	863.61	863.63	863.58	334.72	334.93	417.84	417.68	417.64	335.35	335.43	418.07	417.96	417.90	213.67	213.80	265.47	265.31	265.28

<주> 소수점 3자리 이하 사사오입/매주 수요일에 조사. 제 3, 4주는 11월, 제 1, 2, 3주는 12월임.

### 주유소 판매가격

(단위 : 원/ℓ)

지 역	무연휘발유					등 유					경 유(0.1%)				
	'97. 11 ~12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3주	제4주	제1주	제2주
서울특별시	839.30	839.30	920.40	920.32	920.32	339.78	375.04	458.00	458.00	458.00	374.04	374.04	457.00	457.00	457.00
부산광역시	829.87	830.81	917.84	914.88	914.56	339.68	374.80	458.30	458.29	458.29	374.23	374.23	457.19	457.19	457.19
대구광역시	823.93	823.93	912.20	907.06	908.73	339.87	375.00	458.00	458.00	458.00	374.00	374.00	457.00	457.00	457.00
인천광역시	840.55	840.55	922.40	922.40	922.40	339.84	375.10	458.00	458.00	458.00	373.85	373.85	457.15	457.15	457.15
광주광역시	838.20	838.20	918.50	920.50	920.50	339.90	375.00	458.00	458.00	458.00	374.20	374.20	457.40	457.40	457.40
대전광역시	825.50	830.90	914.00	914.00	911.50	339.90	375.78	458.00	458.00	458.00	374.00	374.00	457.00	457.00	457.00
울 산	837.40	840.60	921.20	921.36	921.20	339.89	374.86	458.89	458.89	458.89	374.70	374.70	457.80	457.73	457.80
경 기	837.21	837.26	919.16	918.52	918.68	339.70	375.57	457.84	457.84	457.84	373.02	374.53	456.25	456.37	456.21
강 원	839.66	839.72	921.63	921.73	921.50	340.34	374.68	458.53	458.72	458.74	374.49	373.77	457.51	457.73	457.75
충 북	835.86	837.32	918.00	916.43	918.00	338.68	374.82	458.00	458.00	458.00	373.55	373.53	457.00	457.00	457.00
충 남	837.87	838.27	919.45	919.57	921.83	339.89	375.21	457.67	457.86	457.85	373.48	374.14	456.48	456.47	456.45
전 북	840.39	840.39	921.39	921.39	921.38	340.67	374.67	458.17	458.17	458.09	374.14	373.75	456.71	456.71	456.62
전 남	839.10	839.17	920.79	920.83	920.31	339.15	374.47	457.72	457.56	457.56	373.75	373.68	456.81	456.81	456.79
경 북	837.23	837.32	919.61	919.52	920.02	339.63	374.47	457.24	457.42	457.42	373.67	373.58	456.66	456.61	456.61
경 남	836.60	836.70	920.58	920.10	919.60	339.58	374.05	457.69	457.71	457.71	373.58	373.58	456.87	456.53	456.53
제 주	847.13	847.13	930.38	930.56	930.38	346.00	381.75	464.75	464.78	464.75	380.00	380.00	463.00	463.00	463.00
전국평균	837.11	837.49	919.85	919.33	919.47	339.83	374.98	458.05	458.09	458.05	373.90	373.92	456.98	456.98	456.95

<주> 소수점 3자리 이하 사사오입/매주 화, 목요일에 조사치의 평균 제 3, 4주는 11월, 제 1, 2, 3주는 12월임.

# 석유 동향 지표

## 10월중 석유지표

(단위 : 천배럴)

	1996		1997		증 감 (%,%P)	
	10	1-10	10	1-10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원 유 도 입	62,352	583,054	78,736	715,831	26.28	22.77
(단가, \$)	20.97	18.44	18.31	19.34	-12.66	4.89
(원유대, 천\$)	1,307,363	10,753,465	1,441,855	13,847,573	10.29	28.77
원 유 처 리	66,678	581,493	79,230	713,046	18.82	22.62
(가동률, %)	88.22	94.32	104.83	96.21	16.61	1.89
제 품 생 산	66,279	586,726	79,816	719,723	20.42	22.67
제 품 소 비	61,578	579,237	66,146	602,950	7.42	4.09

〈주〉 단가, 원유대는 FOB기준

## 지역별 원유도입

(단위 : 천배럴)

	1996		1997		증 감 (%)	
	10	1-10	10	1-10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중 동	48,422	455,337	54,919	482,331	13.42	5.93
동 남 아	7,242	71,248	9,973	135,535	37.72	90.23
미 주	2,127	17,598	2,008	20,289	-5.57	15.29
유럽·아프리카	4,421	34,933	10,521	69,952	137.94	100.24
오세아니아	140	3,937	1,315	7,725	839.48	96.19
계	62,352	583,054	78,736	715,831	26.28	22.77

## 석유제품 수급

(단위 : 천배럴)

	생 산		소 비		생 산 증 감 (%)		소 비 증 감 (%)	
	10	1-10	10	1-10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휘 발 유	7,480	63,921	6,446	59,535	20.94	8.84	4.62	5.58
등 유	7,440	55,761	7,606	55,367	31.83	45.04	39.73	9.50
경 유	23,630	215,319	14,361	135,558	19.49	23.37	-8.03	-4.14
B - C 유	19,397	185,379	14,186	136,891	10.98	9.72	6.85	3.32
나 프 타	14,041	128,204	13,802	128,651	35.28	53.65	12.37	10.59
프 로 판	771	5,969	4,051	38,884	35.56	38.37	10.21	4.01
부 탄	1,499	10,752	2,095	18,362	92.38	13.12	16.14	6.05
아스팔트	1,588	12,158	1,513	9,380	17.08	30.78	20.64	15.47
기 타	3,969	42,259	2,086	20,322	-3.51	6.98	1.02	5.67
계	79,816	719,723	66,146	602,950	20.42	22.67	7.42	4.09

〈주〉 제품소비는 내수기준

## 석유제품 수출입

(단위 : 천배럴, 천달러)

	수 입		수 출		수 입 증 감 (%)		수 출 증 감 (%)	
	10	1-10	10	1-10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물 량	13,556	151,366	26,218	228,095	-12.73	-19.41	39.83	38.96
금 액	279,322	3,594,559	574,461	5,088,759	-17.69	-11.51	22.39	39.90

〈주〉 수출은 국제빙커링 및 미군납 포함